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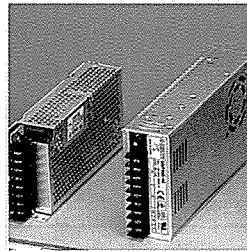
CEO Interview



전력전자 분야에서의 선두주자

-동양이엔피(주) 이용문 대표이사-

SMPS산업은 전자산업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사용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 7월 1일부로 회사명을 동양계전(주)에서 동양 E&P(주)로 바꾸게된 배경 및 의의에 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동양계전(주)이란 회사명을 오랫동안 사용해왔으나 사명이 회사의 사업영역과 비전을 표현하기에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당사가 약 20년전 작은 기업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전력전자분야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이런 규모의 성장과 함께 자본시장에 기업공개를 하여 보다 많은 주주가 당사를 믿고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우리나라에서 동 업종의 선두주자로서 국가경제발전과 고객을 위해 보다 크게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자 사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동양이란 상호는 20년간 사용해왔기에 한국기업의

위상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E&P는 Energy & Power, Earth & People, Environment & Prosperity 란 복합적인 의미로 당사의 에너지/파워의 사업분야를 나타내면서 내적으로는 인간을 중시하는 경영, 사회와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기업, 그리고 풍요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바꾸게 되었습니다.

자본시장의 애널리스트들에 의하면 동양E&P는 금년 상반기 양호한 실적을 거둔데 이어 하반기에도 실적 호전이 지속될 전망이다는데 실제상황을 구체적인 수치와 더불어 짚어주십시오

금년 상반기 매출은 768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약 8% 성장했으나 물량측면에서는 16%이상 성장했습니다. 최근에 고유가, 국제경기의 불확실성, 원화환

올의 강세 등으로 우리나라 IT 전기전자 업종 기업의 상반기 성장이 둔화된 것을 고려한다면 나름대로 선전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전기전자업종이 상반기 보다는 매우 큰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더욱이 최근부터 Digital TV와 첨단 통신서비스 등을 선두로 전자산업이 융합하는 Digital Convergence 화 하면서 앞으로 수년 안에 Digital Boom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잘 아시다시피 SMPS라 불리는 전력 변환장치입니다. 이 제품은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전자산업의 "불"이라 불립니다. 이렇게 전자산업에 필수 불가결한 제품을 연구개발, 생산하면서 우리나라의 전자산업의 발전과 함께 해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전자제품이 해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당사의 영업전망이 밝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올 하반기도 양호한 성장과 함께 내년부터는 해외시장 확대에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최근 PCB 매립형인덕터 특허를 취득하였는데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동양E&P의 기술경영에 관해 설명해주시시오.

PCB 매립형인덕터 기술이란 쉽게말해 PCB 내부에

트랜스포머를 내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량의 제품일수록 트랜스포머의 용량도 커져 제품의 크기가 커질 수 밖에 없으나 최근의 전자제품은 점차 경박단소화 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트랜스포머의 기능을 동선으로 만들어 PCB안에 매립시키는 기술입니다.

당사는 전체 종업원 400명중 연구개발 인력이 85명으로 연구인력 비중이 20%이상입니다. 또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대형 LCD TV 등 디지털 제품에 대한 개발업무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차세대 대체에너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료전지용 전력변환장치 개발에 노력 중입니다. 아직 산업이 미성숙한 분야이므로 현재는 대학 등의 전문연구기관과 협력으로 공동개발을 진행하며 자체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향후 2년 안에는 상용화 제품의 출시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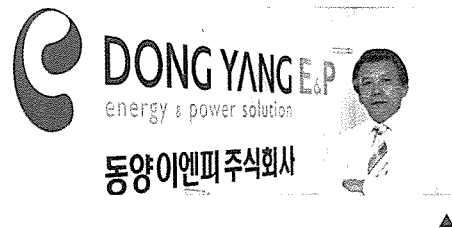
국내 1위 SMPS 전문업체에서 세계유수의 SMPS 전문업체로 발돋움하는 동양E&P의 Vision과 더불어 발전 로드맵에 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당사가 국내에서는 1위의 SMPS업체이지만 세계일류수준의 업체에 비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세계유수의 SMPS업체는 미국이나 일본 등의 기술강국

회사연혁

- 2006. 8. 루마니아 제조법인 설립
- 2006. 4. 슬로바키아 영업법인 개설
- 2005. 7. 동양이엔피(주)로 사명변경
- 2005. 2. 코스닥 상장
- 2004. 7. ISO 14001(환경경영체제기업) 인증
- 2004. 3. 성실납세 우수기업 국무총리 표창
- 2004. 2. 삼성전자(주) Supplier's Day 은상수상
- 2003. 4. 중국 청도공장 설립

- 2001. 11. Xerox사 거래시작
- 2000. 6. 중국 위해공장 설립
- 1998. 3. 중국 천진공장 설립
- 1995. 6. 일본 Canon사 수출시작
- 1987. 5. 삼성전자 거래시작
- 1987. 3.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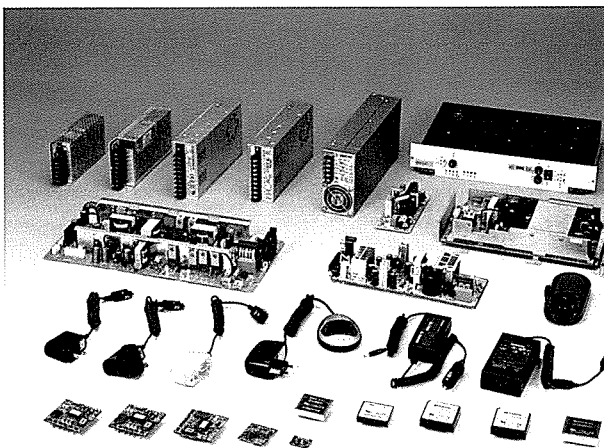
이용문 대표이사

[경력]

- 1997 동양이엔피(주) 대표이사
- 1993 아산전자(주) 대표이사
- 1991 삼성전자 해외법인 운영담당
- 1986 삼성전자(주) 유현현지법인 대표 (해외주재)
- 1970 삼성전자(주) 삼성그룹공채 입사

[학력]

- 1997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1970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에도 많지만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대만에 있습니다. 대만의 전자부품산업은 잘 발달되어 있지만 일본이나 한국에 있는 대형 완제품 제조업체가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삼성전자와 LG전자와 같은 대형업체와 함께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는 많은 벤처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SMPS업체가 전망산업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국내1위 SMPS업체가 세계유수의 SMPS 전문업체가 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당사의 발전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국내의 대형 전자제품 제조업체가 해외에서의 무한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수한 핵심 부품을 공급하여 이 분야의 성장을 함께 영위하겠다는 것. 둘째,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것, 셋째 해외의 우수한 기술동향을 파악하여 이를 적용한 제품을 당사 고객에게 먼저 공급하여 고객과 함께 경쟁에서 Win-Win 하겠다는 것. 넷째,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남보다 먼저 연구개발을 시작하여 신규아이템으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것 등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한 해외 현지공장 설립이 활발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양E&P의 글로벌 전략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당사는 1997년도에 중국 천진에 제조법인을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중국 천진, 위해, 청도, 동유럽 루마니아 등 총 4개의 공장을 운영 중입니다. 이중 중국의 현지법인들은 중국정부에서 인정할 만큼 양호하게 사업을 영위 중입니다. 특히 청도공장은 지난 8월 중국세관에서 발표하는 155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중국세관은 매년 중국에 소재한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기업을 발표하는 데 최고의 영예인 "홍명단"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중국정부는 이런 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우대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세관직원이 통관장소가 아닌 해당업체에 직접 출장을 와서 검사를 하거나, 휴일에도 통관수속을 처리해주는 것을 포함해 검사자체를 생략하거나 통관완료 후세금을 후납하게 해주는 등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금번에 당사 이외에 인증된 한국기업으로는 POSCO와 삼성전자 등 소수의 기업이 포함되었을

뿐이며 한국의 중소기업인 동양이엔피가 "홍명단" 기업에 선정된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초기에 중국진출 당시에는 원가절감을 위해 임가공하는 수준에서 중국공장을 운영했으나, 이제는 현지에서 생산 거점으로 현지생산 및 판매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에 진출한 많은 다국적 기업들과 사업확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글로벌 전략은 원가절감의 제조 목적에서 이제는 마케팅의 목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루마니아에 법인을 설립하였고 내년초에 양산 예정입니다. 유럽지역의 디지털방송의 확대에 따라 디지털TV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현지에서 SMPS를 직접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한국이나 일본의 전자제품 메이커들이 유럽에서의 직접 생산량을 확대 중이라 향후 유럽에서의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루마니아 국빈방문으로 한국과 루마니아간의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물고름 뜨는 시점에서 우리회사가 루마니아에 투자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동양E&P의 품질관리운동 및 환경경영에 관해 설명해주시시오.

우리회사의 경영방침의 첫째가 "품질최우선"입니다. 당사의 SMPS는 대부분 휴대폰과 대형 LCD-TV 같은 고급가전에 내장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품질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Set 업체의 영업에도 치명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품질관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5년 전부터는 6시그마 운동을 전개하여 품질수준도 대단히 높아졌으며, 이를 경영전반에 전사적으로 활용하여 자원활용의 효율성도 높아졌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환경유해물질을 규제하는 등 전자산업에도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영전반에 이를 적용 중입니다. 당사는 이미 ISO14001인 환경경영체제를 인증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RoHS (환경유해물질) 규제에 대응하는 만반의 준비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전력변환장치

솔루션 업체답게 이미 오래 전부터 전기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제품을 개발하여 환경개선에 이바지 하자는 경영패러다임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외 SMPS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국내의 SMPS산업은 전자산업발전과 함께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더욱이 한국의 전자산업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이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 받는 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SMPS 업체는 외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반면에 대기업의 영향을 크게 받아 자체적인 기술력과 독자적인 사업 아이템 개발 측면에서는 별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해외시장 개척에는 외국의 업체에 비해 많이 뒤쳐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만은 한국에 비해 대형 전자제품 제조업체도 적지만 한국보다 많은 SMPS업체가 있고 이들은 일찍이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이 분야에서는 한국보다 위상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의 업체들은 규모보다는 전문분야에 독창적인 기술력을 가진 특화된 업체가 많습니다.

SMPS산업은 전자산업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사용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올수록 보다 효율적인 전원솔루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이 발전할수록 연관된 제품이 출시됩니다. 예를 들면 태양전지나 연료전지가 상용화되면 SMPS가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태양전지나 연료전지에서 생성된 전기는 그것 자체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대체에너지에서 생성된 전기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력변환장치의 수요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현재 국내 전자산업의 규모와 외국의 경우를 고려할 때 SMPS의 비중이 작은 편입니다. 하지만 SMPS산업은 우리 생활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고 그 영역을 확대하는 중입니다.